

안테나

남동구, 제2기 아동권리 강사단 위촉



남동구가 제2기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통과한 18명을 '남동구 제2기 아동권리 강사단'에 위촉했다.

남동구 아동권리 강사단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아동 관련 시설에 파견돼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과 아동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남동구 아동 권리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지난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남동구는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위해 자체 강사양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긴 시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식 기자

연수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연수구는 지난 15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400여 명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이전 2018년 교육 이후 5년 만에 실시됐으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실무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 등 내실 있는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1부에 구청장이 들려주는 '연수변화상' 강연에 이어, 2부에는 △부동산중개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 및 행정처분 사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안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현장 고충과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식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는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형성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부동산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구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나누기 중개업소 운영' △중개보호조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명찰패용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동수 기자

미추홀구시설공단, 공원·녹지 정비 추진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겨울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공원과 녹지 안전 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공단은 공원과 녹지의 낙상사고 위험 지역, 음수대와 공중화장실 등 동파주의 시설, 옥외운동기구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 공원과 녹지에 겨울 초화 1000여 본을 심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방풍벽과 잠복소를 설치하며 재해가 우려되는 나무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성규 이사장은 "공원과 녹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중구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펼쳐

중구가 20일부터 26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얼어붙었던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고 본격적인 감장철을 맞아 싱싱한 우리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0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청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2만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간편환급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 환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가 판매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구매자는 바로 환급 부스를 방문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달까지 매일 일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

강화군, 기존 500m서 300m로 기존 40.5km²에서 23.5km²로 줄어

강화군에 인천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안에는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보존

지역 범위를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화군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192점 중 약 42%인 8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63점의 문화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돼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들이 제한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되면 규제 면적이 기존 40.5

km²에서 58%가 줄어든 23.5km²가 줄게 돼 국가 지정문화재와 중복되는 문화재를 제외한 강화군 내 시지정문화재 39개소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들이 제한돼 왔다. 이에 2014년도에 인천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를 건의했으나 불발됐다가 2022년도에 다시 축소를 건의했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

한 강화군민 1만600여 명의 규제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줌으로써 20년 만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면 군민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남 기자

'청년내일기지' 영종국제도시에 '등지'

중구, 지역 청년들 도전 지원 새로운 청년 소통·교류 거점

중구 지역 청년들의 도전을 돕기 위한 새로운 소통·교류공간 '중구 청년내일기지'가 영종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중구 청년내일기지'는 지역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민선8기 인천 중구가 마련한 새로운 청년소통·교류 거점이다.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명칭은 '중구 청년들이 내 일을 찾아 내일의 꿈을 실현해 주는 기지가 돼주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1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할 중구의 첫 청년내일기지는 영종대로94(운서동 2799-1) 두림타워 4층에 352.8㎡ 규모로 조성됐다. 이를 위해 총 1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운영은 사회적 기업 (주)채움에이치알디가 맡는다.

첫 청년내일기지는 회의실·강의실·1인 미디어실·독서실·공유카페·휴식공간 등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갖췄다.



중구 지역 청년들의 도전을 돕기 위한 새로운 소통·교류공간 '중구 청년내일기지'가 영종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사진=중구)

이곳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상담, 맞춤형 심리상담, 청년 소모임 운영, 청년정책 통합 안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모든 이용은 무료다.

운영 시간은 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다.

특히 구는 오는 2024년 6월 중 원도심 지역에 두 번째 청년내일기지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7일 첫 청년내일기지 개소를 기념해 '제1회 중구 청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현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신성영 시의원, 구의원,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청년내일기지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청년내일기지 개소식과 함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청년축제를 진행, 톨렛 이벤트, 타로 심리상담, MBTI 테스트, 취업 상담, 퍼스널 커리어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컸다.

또 중구 영종 청년 예술공연단체인 '새봄' 퓨전국악 공연과 더불어 중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듣는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청년정책 활성화 공약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정현 구청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청년내일기지'를 통해 맘껏 펼칠길 바란다"며 "청년내일기지가 청년들이 꿈을 위해 도약하는 에너지 충전 공간이자 청년정책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삼 기자

주민·학생 만족해 하는 교육·문화 공간 조성

서구-인천시교육청 협약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서구는 15일 인천시 교육청과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와 교육청이 공동협력해 학교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안종삼 기자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은 전체면적 55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도서관, 여학당, 다함께돌봄센터, 슈퍼비전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구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거점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동구협의회가 지난 13~15일까지 화도진공원 일원에서 지역 어린이 450여 명을 대상으로 '내가 조선의 수군이다' 주제 화도진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사진=동구)

'내가 조선의 수군이다'

민평통일자문회의 인천동구협의회 화도진 역사 문화체험 실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동구협의회가 지난 13~15일까지 화도진공원 일원에서 지역 어린이 450여 명을 대상으로 '내가 조선의 수군이다'는 주제로 화도진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화도진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역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양·자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외세 침략이 본격화한 조선 말기 인천 동구에 화도진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화도진에 대한 배경지식과 함께 한·미(조·미) 수교에 처음 사용한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는 등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치열한 경쟁보다 협동이 필요한 '전통 놀이 체험교실'도 열렸다.

안종삼 기자

'아동학대 STOP...아동행복 GO' 진행

부평구, 아동학대예방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부평구가 16일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 역사 내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아동학대 STOP, 아동행복 GO'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구민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평구청 아동보호팀, 부평·삼산 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가족심리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아동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내에서 주

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렸으며 알기쉬운 OX퀴즈 참여를 유도해 주민과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피켓 홍보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은 금지돼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의 아동들이 항상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지역주민들도 따뜻한 관심을 두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

구청사 부설 지하주차장 임시 개방

계양구, 평일 저녁·주말

인근상권 주차난 해소

계양구가 18일부터 구청사 지하 주차장을 평일 저녁과 주말 동안 임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임시 개방은 현재 진행 중인 계양구청 남측 '계산2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의 공사 기간 동안 인근 계산택지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기존 지상 252면을 상시 개방했으나 이번 임시 개방으로 지하 281면을 추가 개방하면서 인근 상권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임시 개방 기간 동안 지하주차장을 평일과 주말 7시부터 24시까지 개방한다.

평일 18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남측광장으로 통하는 외부 출입구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다.

유한 계양구청장은 "구청사 지하주차장은 청사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산2 공영주차장 공사 기간 동안 인근 계산택지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번 임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장 개방으로 주변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와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을 임시 개방하며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 준비를 완료했다.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출입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